제10강 박철의 「영진설비 돈 갖다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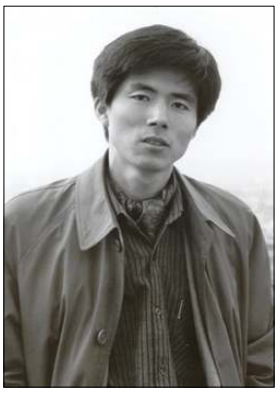
(1, 2교시)

영진설비 돈 갖다 주기

막힌 하수도 뚫은 노임 4만원을 들고
영진설비 다녀오라는 아내의 심부름으로
두 번이나 길을 나섰다
자전거를 타고 삼거리를 지나는데 굵은 비가 내려
럭키슈퍼 앞에 섰다가 후두둑 비를 피하다가
그대로 앉아 병맥주를 마셨다
멀리 쑥국쑥국 쑥국새처럼 비는 그치지 않고
나는 벌컥벌컥 술을 마셨다
다시 한 번 자전거를 타고 영진설비에 가다가
화원 앞을 지나다가 문 밖 동그마니 홀로 섰는
자스민 한 그루를 샀다
내 마음에 심은 향기 나는 나무 한 그루
마침내 영진설비 아저씨가 찾아오고
거친 몇 마디가 아내 앞에 쏟아지고
아내는 돌아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냥 나는 웃었고 아내의 손을 잡고 섰는
아이의 고운 눈썹을 보았다
어느 한쪽,
아직 뚫지 못한 그 무엇이 있기에
오늘도 숲 속 깊은 곳에서 쑥국새는 울고 비는 내리고
홀로 향기 잃은 나무 한 그루 문 밖에 섰나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아이는 숙제를 하고
내겐 아직 멀고 먼
영진설비 돈 갖다 주기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1. 박철에 대하여



1960년 경기도 김포에서 출생. 1987년 『창비1987』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 시집으로 『김포행 막차』,『밤거리의 갑과 을』,『새의 전부』,『영진설비 돈 갖다 주기』 등의 시집을 냈다. 「시힘」동인. 김포를 사랑하고, 김포 출신이라면 당연히 가야하는 해병대에 '몸이 좋지 않아' 가지 못하고 방위생활을 한 것을 늘 부끄럽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방위생활을 해병대 생활 이상의 군기로 했고, 그래서 스스로 '해병대 방위'라고 일컬음. 박영근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실을 살 수 밖에 없는 치욕과 비참에도 불구하고, 시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비애와 파격으로 현실에 맞서"려는 전형적인 시인 가운데 한 사람.

2. 비유의 말과 직설의 말

- 일상생활의 시적 형상화가 가지는 어려움
- 비유(사물에 의탁해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는)와 직설(행위를 내뱉듯이 그대로 드러내는)의 대조

cf.
한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솨아솨아 쏟아지는 무수한 알맹이들
(중략)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솨아솨아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김준태,「참깨를 털면서」부분

3.「영진설비…」에서 비유와 직설

-------//(기)

멀리 쑥국쑥국 쑥국새처럼 비는 그치지 않고
----------//(승1:맥주 사건)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내 마음에 심은 향기 나는 나무 한 그루//(승2:자스민 사건)

----------//(전)
어느 한쪽,
아직 뚫지 못한 그 무엇이 있기에
오늘도 숲 속 깊은 곳에서 쑥국새는 울고 비는 내리고
홀로 향기 잃은 나무 한 그루 문 밖에 섰나//

----------//(결)

4. 대조를 통한 변증법적 형상화

- 직설 : 영진설비 심부름, 맥주 마시기, 자스민 사기
- 비유 : 쑥국새, 내 마음의 향기
- 대조를 통한 변증 : 홀로 향기 잃은 나무 한 그루, 내겐 아직 멀고 먼/영진설비 돈 갖다 주기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